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2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빚

6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 관찰하기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 전 로마 성도들을 위해 이 로마서를 씁니다.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밝힙니다. 로마의 성도들 역시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가르칩니다.

1.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1절)

2.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7절)

## • 닦아가기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처럼 나 역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 •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

8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10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13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14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15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 3 목상하기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직접 만나 교제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겸손히 기다립니다(10절).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자신이 세운 전략과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루빨리 이 귀한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겠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의 태도를 본받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 4 적용하기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매질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긴 바울이지만 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자신감이 있나요? 내가 경험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나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밝히는 것이 망설여지고 꺼려 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은 나 또한 복음에 빛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 ② 친구를 전도하는 일이나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 등에 조바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다가가고 있나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복음에 빛진 자로서 이 귀한 귀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기쁘게 전하는 자녀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변명할 수 없는 불신앙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 주셨습니다. 20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21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23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 • 죄의 결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 3 묵상하기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분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공기가 있다는 증거이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빛이 있다는 증거이듯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허망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어두우며, 미련하다'(21-22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십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선택하는 삶이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24절)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 4 적용하기

지금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만족하면 된다'는 말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세대입니다. 물론 그럴듯하고 의미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 맘에 좋은 대로, 내 몸이 만족하는 대로 먹고 입고 움직이고 선택하며 살고 있다면, 이제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특히 무엇을 볼 때,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나요?
- ②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한 것들은 무엇이고, 그 일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지금도 살아서 제 안에,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26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27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 ·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28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9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30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31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32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 3 묵상하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타락의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26절).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삶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이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엄청난 형벌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죄에서 돌아킬 소망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양심과 죄책감을 애써 외면하는 이 시대의 죄악들(32절)을 나는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자유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깨달으며, 그분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바랍니다.

### 4 적용하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비롯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성적 타락의 행위(26-27절)들이 옹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하고 혈투는 등의 행위들이 인간적이라는 말로 포장되거나 합리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잘되고 잘사는 것을 보며 흔들리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타협이 나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요즘 대세로 떠오른 동성애 등의 성적 타락은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②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판단하지 말라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3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4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5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 ·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7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는 영생을 주시나 8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서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9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10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11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 3 묵상하기

로마서 1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심판받게 될 유대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분께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도 율법도 잘 안다는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전합니다(6절). 특권을 누리려고만 할 뿐 백성답게 살 책임은 등한시했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임을 나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 4 적용하기

그동안 배운 성경 지식과 신앙 경력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아니고, 가족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경도, 가족도 아닌 나 자체에 주목하십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용납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곧장 돌이지 않는 무분별한 상태(4절)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 ②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행동에 대해 너무 쉽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나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저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의로운 사람은 행하는 사람

12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14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15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돼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16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 3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아는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심판을 당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혜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온갖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 새겨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내려져가는 이때, 들은 말씀이 지식에서 끝나고 삶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는 오늘의 교훈을 나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 4 적용하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QT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더라도 QT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수구로 의미 없이 내려가는 물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혹시 나는 QT를 할 때 말씀을 한 번 훑 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나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 ② 남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잘 해주고,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도 잘 분별하지만 정작 나는 말씀대로 일상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며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하나님의 ‘찐’ 자녀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유대 사람들

17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18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19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20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1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22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23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4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 · 참 유대 사람과 참 할례

25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26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27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28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가 아닙니다. 29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